

서로를 지탱하는 타인의 온기와 연결의 힘

『울지 않는 달』

이지은 소설





책 소개

사람들은 달이 부모처럼 미소 짓고, 눈물 흘린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기도를 하지만 달은 기도를 들어줄 힘이 없다. 인간들의 순수한 기도가 욕심으로 변해 가는 것을 볼 뿐. 달은 울고 싶었으나 울지 못한다. 하늘에 매달려 인간들의 욕망 섞인 기도만 묵묵히 받아 내던 달은, 전쟁의 소음과 절망적인 기도들이 하늘을 뒤덮자 그 누구도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순간, 달은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한다.

전쟁에서 엄마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가 있다. 달은 외면하려 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떠나지 않는다. 달은 사슴과 올빼미의 경고를 통해 인간의 냄새를 노리는 멧돼지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다. 멧돼지들이 인간들 때문에 땅을 잃고 난 후에는 더욱 인간의 피에 굶주려 있다는 것. 그 말을 듣고 아이에게 돌아간 달은, 수풀 속에 있던 늑대 카나의 눈동자를 발견한다.

카나는 짝과 아이를 잃은 늑대다. 멧돼지들과의 싸움에서 돌아오지 못한 짝을 그리워하며 홀로 새끼를 낳은 카나는 다른 암컷 늑대의 굴에 새끼를 밀어 넣고 길을 떠난다. 카나는 길 위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품에 안는다. 달과 아이, 카나는 물을 싫어하는 멧돼지들을 피해 호수로 둘러싸인 섬으로 이동한다. 그곳에서 아이는 점차 성장해 간다. 먹을 것을 구하고, 식물을 연구하고, 털을 엮어 옷을 만드는 동안 달은 행복이라는 낯선 감정을 배운다.

『울지 않는 달』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얼룩진 전쟁이라는 비극적 배경 속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시선을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성을 질문하는 소설이다. 작가는 생태계라는 거대한 그물망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아이를 돌보고,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달과 카나의 모습을 통해 독자는 진정한 위로와 공존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게 된다. 결국 눈앞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숭고한 목적임을 떠올릴 수 있는 작품이다.

오늘날 교육 현실에는 팬데믹으로 관계적 고립을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 연대의 가치와 따뜻한 울림을 전해 주는 『울지 않는 달』은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했던 ‘달’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과정은 파편화된 일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공감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본 활동이 학생들이 고립된 자아를 넘어 타인과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연결의 힘’을 신뢰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수업의 초점

1. 추론하며 읽기

문학 작품의 깊이 있는 이해는 독자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추론의 과정에서 완성된다. 독서 중 떠오른 의문을 메모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읽기 전 초점 질문을 생성하는 활동은 학습자의 추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나침반이 된다. 본 수업에서는 제목을 실마리로 삼아 질문을 생성하는 추론적 읽기 과정을 안내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5분간 브레인스토밍하며 자유롭게 질문으로 구체화한다. 이후 교사와 함께 이 질문들을 유목화하여 독서 과정 내내 탐구해야 할 ‘핵심 질문’으로 확정한다. 예를 들어, “달은 왜 울지 못하는가?”, “달은 울 수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울지 않기로 선택한 존재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핵심 질문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읽는다. 또한 독서 일지를 작성할 때도 단순히 사건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2. 캐릭터 간 관계 탐구하기

이 작품은 달과 아이, 카나가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구원하는지를 따뜻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주요 캐릭터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사건과 말, 행동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면서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한다. 나아가 적대자로 등장하는 멧돼지,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욕심의 기도를 올리는 인간들까지 아우르면서 이들의 관계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세계 안에서 존재의 얽힘을 경험하는 것은 작품 속 달과 아이, 카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학생들 또한 가정과 학교 안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인간을 넘어선 다양한 존재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작품에 대한 탐구는 곧 삶에 대한 탐구로 확장될 수 있다.

3.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활동		수업 형태
1차시	읽기 전 활동	제목으로부터 핵심 질문 생성하기	전체
2~6차시	읽기 중 활동	메모하며 읽기 (질문과 추론)	개인
7차시	읽기 후 활동	주요 캐릭터 정보 찾기	모둠
8차시		캐릭터 간 관계 탐구하기	
9차시	평가	논술형 평가	개인
10차시	추가 활동	이야기 창작하기	



●●● 읽기 전 활동

| 1차시 |

활동 1 제목으로부터 핵심 질문 생성하기**1.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질문을 자유롭게 말해 보자.**

- ‘울음’과 ‘달’과 관련된 질문은 무엇이든지, 검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온라인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질문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울지 않는 것이 달의 의지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것일까?
- 달이 만약 울음을 터뜨린다면,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 달이 울 수 있을까?
- 달은 원래부터 울 수 없는 존재였을까?
-
-
-
-

2. 생성된 질문을 유사한 것끼리 묶고, 어떤 특징을 바탕으로 분류한 것인지 써 보자.

질문 분류	특징
• 달이 울 수 있을까? • 달은 원래부터 울 수 없는 존재였을까? • 울지 않는 것이 달의 의지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것일까?	달의 특성
• •	
• •	

3. 다음 조건에 따라 하나의 '핵심 질문'을 선정해 보자.

- 소설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을 최종 핵심 질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교사가 비계를 제공한다.
- '정확한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학생들의 확장적 사고를 도우면서 작품 전체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선정해야 한다.
- 핵심 질문은 교사의 수업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 도출된 핵심 질문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작품 읽기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 질문의 조건

- 지속적인 사고와 탐구를 자극하는 질문이다.
- 타당한 근거를 요구하는 질문이다.

핵심 질문:

예시 답안: 달이 올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일까?

●●● 읽기 중 활동

| 2~6차시 |

활동 1 메모하며 읽기 (질문과 추론)

1. 소설을 읽으며 특별히 마음이 머무는 장면이나 문장에 인덱스 라벨을 붙여 보자.

- 읽으면서 마음이 가는 부분에 인덱스 라벨을 붙인 후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면, 학생들이 중간에 기록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다.
- 해당 차시에 읽으며 떠오른 생각, 질문, 그려본 장면, 작가의 메시지를 메모하도록 한다.
- 작성 항목을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작성 예시를 교사가 시범 보이면 도움이 된다.
- 수업 종료 10분 전임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읽은 부분까지 라벨 등을 활용하여 표시하도록 한 후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1회차 읽기	년 월 일 교시	읽은 쪽수	8 ~ 40쪽
--------	----------	-------	---------

읽어 적기(쪽수)	① 떠오른 생각 ② 궁금한 점 ③ 머릿속에 그려진 장면 ④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 작가의 의도
• ‘제발 기도를 멈춰 주기를!’ 달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게 빌었다. 하늘과 별과 땅과 벌레들에게도 빌었다. 심지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빌었다. 마치 인간처럼 구걸했다. (10쪽)	(①)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었던 달이 거꾸로 인간들에게 기도를 멈춰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비극적이다. 인간들의 욕망이 얼마나 무겁고 지독했으면 달조차 인간처럼 구걸하게 만들었을까.
• 거대한 힘이 달을 짓밟았다. ~ 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쿠앙—! (14~15쪽)	(③) 달이 땅으로 떨어져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무서우면서도 신비롭게 느껴졌다. 불덩어리가 얼굴을 뭉개고 가로로 길쭉, 세로로 납작해지는 달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늘 보던 은은한 달빛과는 다른 모습이다.
• 달이 나지막이 입을 뻗었다. “원래 삶은 완벽하지 않단다.” 처음이었다. 달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그 순간 달의 배 속에 물결한 것이 느껴졌다. 양쪽 옆구리가 간질거리더니 길쭉하고 끝이 둥근 막대가 뿜혀 나왔다. 막대 끝이 다섯 개의 가지로 나누어지고, 크고 작은 마디들이 생겼다. (23쪽)	(④) 작가는 누군가를 쓰다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그를 만질 수 있는 '손'이 생긴다는 설정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과정이야말로 존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전하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늘 위에서 인간의 기도를 그저 '듣는 존재'였던 달이, 지상으로 내려와 고통받는 아이를 직접 '돕는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은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 달은 카나와 아이를 밤새 바라봤다. 흡사 연구자의 모습이었다. 달은 이 순간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움직임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이 깨질까 긴장되었다. 짐승과 인간이 언제까지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 끝을 보고 싶었다. 꼭 보아야만 했다. 달은 처음으로 존재의 이유 같은 것이 생겼다. (40쪽)	(②) - 달은 왜 짐승과 인간의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켜보고 싶었을까? - 달이 생각한 ‘끝’은 무엇일까? - 작가가 달의 모습을 연구자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2회차 읽기	년 월 일 교시	읽은 쪽수	
읽어 적기(쪽수)	① 떠오른 생각 ② 궁금한 점 ③ 머릿속에 그려진 장면 ④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 작가의 의도		
.			
.			
.			
.			

3회차 읽기	년 월 일 교시	읽은 쪽수	
옮겨 적기(꼭수)		① 떠오른 생각 ② 궁금한 점 ③ 머릿속에 그려진 장면 ④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 작가의 의도	
.			
.			
.			
.			

4회차 읽기	년 월 일 교시	읽은 쪽수	
읽어 적기(쪽수)	① 떠오른 생각 ② 궁금한 점 ③ 머릿속에 그려진 장면 ④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 작가의 의도		
.			
.			
.			
.			

활동 1 주요 캐릭터 정보 찾기

- 학생들이 인물의 성격을 짐작만으로 쓰지 않도록 안내한다.
- 한 사람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다른 모둠원들이 보완과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4인 1모듬으로 구성하여, 각자 탐구할 캐릭터를 하나씩 분담해 보자.
2. 소설을 다시 훑어보며 내가 맡은 캐릭터의 '핵심 특성'과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결정적 장면'을 찾아 기록해 보자.
3. 자신이 찾은 내용을 모둠원들에게 설명해 주고, 서로의 의견을 보태며 표를 함께 완성해 보자.

주요 캐릭터	작성자	핵심 특성 ※ 대상의 특성을 한 문장으로 써 보자.	결정적 장면 ※ 핵심 특성을 뒷받침하는 장면을 2~3가지 찾아 써 보자.
달	김OO	관찰자, 연구자의 시 선에서 점차 생명을 보듬고 돕는 존재로 변화한다.	• 섬의 생태계를 세심하게 채집하고 분류하며 즐거움 을 느끼고 메스꺼움을 견디며 식물의 식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등 아이의 생존을 돕는다. • 지상에 머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부서져 돌덩 이들이 떨어져 나가지만, 이를 감수하며 카나와 아이 를 위한 희생을 멈추지 않는다. • 끝내 땅의 기억을 모두 잊고 하늘로 돌아가며 인자 한 얼굴과 눈물 자국마저 사라진 채, 아무런 사연도 담기지 않은 '그냥 달'이 된다.
아이			

카나			
멧돼지			

활동 2 캐릭터 간 관계 탐구하기

1. 4인 1모듬으로 구성하여, 각자 탐구할 캐릭터 간 관계를 하나씩 분담해 보자.
2. 소설 속 구체적인 대사나 결정적인 행동을 근거로 삼아, 이들의 관계를 2~3문장으로 정리해 보자.
3. 자신이 찾은 내용을 모둠원들에게 설명해 주고, 서로의 의견을 보태며 표를 함께 완성해 보자.

관계	작성자	관계적 특성
달 ↔ 아이	박OO	달은 인간의 일에 개입하기를 망설이면서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으려 했으나, 아이의 위험을 감지하고는 다시 돌아와 보살피는 존재가 된다. 아이의 먹거리를 위해 메스꺼움을 참으며 식물을 직접 연구하고, 아이는 그런 달의 곁에서 별자리와 숲의 이치를 배우며 신뢰를 쌓아 간다. 두 존재는 함께 산책하고 비를 구경하며 유대감을 형성한다.
달 ↔ 카나		
아이 ↔ 카나		
달, 아이, 카나 ↔ 멧돼지		

활동 3 논술형 평가

- 제목을 바탕으로 생성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관계적 얽힘을 중심으로 달의 변화에 주목하여 서술하도록 안내한다.

문항

“달이 울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일까?”에 대해 다음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조건

1. 소설 속에서 달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찾아 쓸 것.
2. 그 눈물의 의미를 캐릭터 간의 관계 변화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

• 예시 답안

소설의 후반부, 달은 카나를 죽이고 아이마저 공격하려는 멧돼지를 뼈칼로 막아선다. 멧돼지와 함께 폭포 아래로 추락하며 마지막 남은 작은 돌덩이마저 부서지는 순간, 달의 눈언저리에서는 따뜻한 물이 흐른다. 처음에는 인간의 일에 개입하기를 망설이며 관찰자로만 머물던 달이, 아이를 품어 준 카나와 교감하고 아이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몸을 깎아 내는 과정을 거치며 깊은 공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활동 4 이야기 창작하기

- 작가가 작은 그림에서 달의 이야기를 시작했듯, 학생들이 주변의 존재를 관찰하여 자기만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이야기를 쓰도록 안내한다.
- 발견한 존재의 특징을 첫 문장으로 삼아, 대상과 다른 존재의 연결을 상상하도록 도움말을 줄 수 있다.

1. 다음은 이 소설의 「작가의 말」 도입부이다. 작가가 ‘달’에게 표정을 찾아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듯이, 우리 주변의 존재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나만의 이야기를 창작해 보자.

손톱만 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세 개의 짧은 막대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웃는 달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달은 늘 기도를 받는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출발이었습니다. (154쪽)

2. 관찰 대상과 한 줄 특징을 바탕으로 10문장 내외의 짧은 이야기를 창작해 보자. 그 존재는 어떤 사연을 품고 있으며, 누구와 어떤 ‘연결’을 맺고 있을까?

관찰 대상	
대상의 한 줄 특징	
이야기 창작하기	

• 예시 답안

관찰 대상	비닐우산
대상의 한 줄 특징	편의점의 비닐우산은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 창작하기	편의점의 비닐우산은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오늘 날씨도 맑다. 어제는 학원을 마치고 컵라면을 사 먹으러 온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를 부러운 듯 구경만 했다. 아이들은 땀을 닦으며 나갔고, 비닐우산은 다시 좁은 통 속에 꽂혀 창밖의 마른 먼지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진 오늘 아침, 한 아이가 헐떡이며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왔다. 우산은 드디어 자신의 투명한 몸을 활짝 펼쳐 아이의 머리 위를 덮어줄 수 있었다. 후두둑 떨어지는 차가운 빗방울, 우산을 쥔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덕분에 비닐우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